

벤처문화란 존재하는가?

인재영

월간 e-business 기자 / pul@clickbiz.co.kr

벤처에 대한 편협한 시각은 우리의 생각을 일정하게 규정한다. 벤처라는 단어가 주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정서가 벤처에 대한 고정된 관념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벤처는 어떠해야 한다' 또는 '벤처는 어떤 것이다' 라고 규정된 생각들이 벤처는 당연히 이전의 사업장과 다른 어떤 색깔을 가지기를 바란다.

벤처는 상당히 진보적인 분야이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그러하고, 인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조직화 되고 관료화 된 기존의 문화적 뿌리를 과감히 벗어 던진 벤처는 그래서 신선하다. 진보적인 것을 지향하면서도 실재는 대단히 보수적인 우리의 생활은, 과감한 그들의 도전에 많은 기대를 한다. '벤처문화' 라고 명명하면서까지 그들을 긍정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벤처라고 하면 우리는 밤낮 없는 일터와 규정되지 않은 복장,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그 문화로 규정한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나름의 틀에 또 다시 정형화 되고 있다.

좁다란 사무실... 형식보다는 내용을 추구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사무실 환경은 벤처 이전의 사무실 환경과 그리 달라질 것은 없다. 달라진 것이라면 비효율적으로 남겨졌던 공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근무 조건.....그 변화도 별다르지 않다. '자유로운 일터' 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쉽 없는 근무시간은 더 이상 창의력을 유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아니다. 이것은 벤처 문화가 기존의 사무실 문화와 별다르지 않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벤처라는 사업의 신선함에 걸맞는 문화 환경은 무엇인가? 벤처에 적합한 문화 환경을 찾기 위해서는 벤처산업의 속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벤처란 무한 경쟁에 익숙한 스피드와 끊임 없는 아이디어 발굴 그리고 실패에 두려워 하지않는 분위기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상당히 개인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작업 공간을 기본 조건으로 삼는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벤처는 개인 공간을 옆사람과 칸막이를 해 두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현재 기존의 사무실 환경과 별다를 것이 없는 작업 환경은 문화적 측면에서 벤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벤처 업무에 가장 적합한 작업 환경 모델은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에 알맞은 것이어야 한다. 벤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뇌이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의 선정은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다. 벤처 초기의 작업장이 창고를 개조한 공간이었다는 것이 시사하는 점을 우리는 눈여겨 볼 만 하다.

벤처는 형식을 싫어하고 수직적 조직관리를 떨리하는 다분히 개인적인 성향을 지닌 조직이다(물론 이들의 개인화는 팀웍이라는 것을 통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낸다). 따라서 개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하여 충분한 그리고 쾌적한 작업 공간을 필요로 한다. 창의력을 확장 시킬 만한 쾌적한 사무실, 사무실의 주인은 건물주가 아니라 사원이라는 명확한 개념하에 만들어진 이런 저런 설비들...현재 이런 일에 있어서 가장 내뿜을 만한 벤처를 뽑자면 "단지일보" 정도다. 물론 벤처라는 사업의 특성상 처음부터 완벽한 근무 환경을 갖추고 시작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만들어진 판에 끼어 들어가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신생 기업이면 모두 벤처라는 이름을 붙이는 요즘이다. 기존의 사업장과 별다를 것이 없는 근무환경과 경영 마인드 그리고 외부의 시선에 따라가는 벤처정신... '이것이 벤처다' 라고 규정하고 벤처를 바라봐서는 안된다. 그러나 기존의 사업장과 별다를 것이 없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사업장을 우리는 '벤처' 라고 이름 지어야 할 것인가는 생각해 볼 일이다. **KCRC**